

머독의 DirecTV 인수관련 시사점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곽동균
(T. 570-4415, tonggy@kisdi.re.kr)

1. 들어가며

세계 최대의 위성방송 업체인 DirecTV가 결국 News Corporation(이하 News Corp.)의 창립자이자 소유주인 '미디어 황제' 머독(Rupert Murdoch)에 인수되는 것으로 결정된 듯하다. 이번 인수건은 지난 2001년초에 발표되었다가 무산된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지만, 그 보다는 오랫동안 미국 본토에서 위성방송사업을 펼쳐보이고자 했던 머독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DirecTV의 매각 과정을 요약해보고, 이번 인수건이 갖는 함의를 News Corp.의 미디어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News Corp.의 DirecTV 인수 과정

이미 지난 2001년 초, News Corp.이 DirecTV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¹⁾ 그러나, 거래 성사가 유력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DirecTV의 소유주인 General Motors(GM)²⁾와의 협상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그 동안 DirecTV의 향배는 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사항이었다. 지난 2001년 초 News Corp.측의 인수 시도가 무산된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미국 내 2위의 위성방송 업체인 EchoStar가 DirecTV와의 합병을 시도함으로써, 미국내 다채널영상제공(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MVPD) 시장에 큰 파란이 일기도 하였다. 이 두 업체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당시 미국 내 최대의 케이블TV 다중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였던 AT&T Broadband를 가입자 수에서 능가하는 초대형 업체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공정거래위원회(FTC)의 합병 인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간의 합병도 결

1) 이에 대해서는 2001년 본지 동향원고(곽동균, 2001)를 참고할 것.

2) 사실, DirecTV는 General Motors의 직접적 자회사는 아니다. 다만, DirecTV의 모회사이며, 위성체를 소유하고 있는 Hughes Electronics의 최대주주가 바로 General Motors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DirecTV가 GM의 손자회사 정도 되는 셈이다. 그리고 News Corp.이 인수하게 될 회사는 엄밀히 말해서 DirecTV가 아니라, Hughes Electronics라고 한다.

국 실질적인 MVPD 시장 내부의 독과점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끝내 합병 불허로 결론 내려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2003년 초에는 샌안토니오(San Antonio)의 지역전화사업자인 SBC Communications(이하 SBC)가 DirecTV에 관심을 보여 합병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DirecTV를 둘러싼 인수전은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지역전화 회사인 SBC는 DirecTV 인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를 원했다고 전해졌지만, 결국 SBC와 GM간의 협상은 이달 초 최종 결렬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GM은 DirecTV의 모회사인 Hughes Electronics 지분 중 34%를 약 66억 달러에 News Corp.에 매각할 것을 합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표〉 DirecTV 패키지 종류(2002년 7월 12일 현재)

패키지명	채널	가격	
기본형 패키지 Base Package	Total Choice	110개	\$31.99/월
	Total Choice Plus	125개	\$35.99/월
	Total Choice Premier	180개	\$81.99/월
기본형 패키지 + 지역채널* Base Package with Local channel	Total Choice	115개	\$37.99/월
	Total Choice Plus	130개	\$39.99/월
	Total Choice Premier	185개	\$85.99/월
프리미엄 서비스	HBO	7개	1개 선택 : \$12/월 2개 선택 : \$22/월 3개 선택 : \$31/월 4개 선택 : \$39/월 5개 선택 : \$46/월
	STARZ Super Pak	12개 STARZ!(4개) 양코르(2개) 양코르 테마(6개)	
	Showtime Unlimited	9개 쇼타임(5개) 무비채널(2개) FLIX(1개) Sundance(1개)	
	Cinemax	3개	
	Sports Pack**	23개	

* NBC, ABC, FOX 등 지상파 전국 네트워크

** 리그별 방영권 제한이 적용됨

*** 이외에도 리그별 별도 계약에 따른 스포츠 채널, 프로그램 가이드 채널, 프리미어 중국어 채널 등도 시청 가능

자료: <http://www.directv.com/DTVAPP/learn/PackageOverview.jsp>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현재로서는 확언할 수 없지만, News Corp.의 이번 DirecTV 인수는 관계 당국에 의해 독과점 규제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미국의 소유규제 규정상, 비록 4대 네트워크 중 하나인 Fox TV를 소유하고 있으나 News Corp.의 위성방송 부문 진출을 불허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국의 규제 기관들은 지역 케이블TV SO와 TV방송사의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견지해왔지만,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직접적 금지 조항이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중 매체간의 결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EchoStar의 DirecTV 인수가 무산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합병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반독점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결론은 그 동안 케이블TV 부문의 거대 합병에 대해 보여준 미 규제 당국의 태도와도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다.³⁾ 그러나, 거대 위성방송사간의 합병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되므로,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규제 당국의 판단이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 케이블TV SO가 지역독점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MVPD 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실질적 경쟁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규제 당국이 고수한 것이다. 이는 대다수 지역에서 DirecTV와 EchoStar, 그리고 케이블TV SO 등 최소 3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양대 위성방송사간의 합병한다면, 많은 지역에서 2개 업체의 경쟁만이 남게 되며, 심지어 케이블이 포설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위성방송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제 당국이 우려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News Corp.이 DirecTV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MVPD 시장에서 유효 경쟁 체제는 여전히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합병건으로 인해 News Corp.의 미디어 독점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논란이 될 소지가 없지 않은 것 같다.

90년대 후반의 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3) 지난 1999년 AT&T가 MediaOne Group과 합병한 것과 2001년 말의 Comcast의 AT&T Broadband 합병 등 그 동안 케이블TV 부문에서 이루어진 M&A는 대체로 다 허용되어 왔다. 일부 조건부로 허용된 사례도 없진 않았으나, 불허로 결론 내려진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위성방송 부문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있지만,⁴⁾ News Corp.은 디지털방송 분야에서 그 지위를 더욱 굳히고 있는 중이며, 향후 사업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다. News Corp.이 탄생시킨 Fox TV는 NBC, ABC, CBS 등과 함께 미국의 4대 네트워크로 자리를 굳혔고, Fox 뉴스는 이미 지난 해 CNN의 시청률을 뛰어 넘은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위성방송 업체인 BskyB의 디지털 서비스인 'Sky Digital'은 영국의 디지털방송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BBC와 공동으로 출자한 'Freeview'는 'ITV Digital'이 파산한 영국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부문에서 가입자를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 호주에서 시작한 '미디어 재벌'인 머독은 이미 전 세계에 걸쳐서 신문, 주간지, 뉴스 채널, 위성방송 플랫폼, 지상파 네트워크 등을 모두 소유한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리고 이번 DirecTV 인수는 그의 오랜 숙원이자, 미디어 제국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여겨져 왔다. 이제 세계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본토를 모두 커버하는 위성 플랫폼까지 장악하게 됨에 따라, 머독의 미디어 업계에서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안 그래도 CNN에 비해서 '선정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Fox뉴스처럼, 그의 이번 행보는 일부 미디어 업계와 관련 학계가 그에 대해 갖는 비판적 시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업체가 전세계 미디어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다매체 환경 속에서 '사상의 자유'와 '다양한 목소리'가 침해받는 아이러니에 대한 우려를 필연적으로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미디어 독점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1] 광동균, 「News Corp.의 DirecTV 인수 논의」,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3권4호 통권273호, 2001. 3. 2.
- [2] 정윤식, 「미국 미디어 기업의 교차소유 및 M&A에 관한 법제론적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가초청세미나 발제자료, 2002. 11.
- [3] "By Acquiring DirecTV, Murdoch Gets Upper Hand", *New York Times*, 2003. 4. 10.
- [4] "EchoStar-Hughes deal faces FCC Scrutiny", *News.com*, 2002. 11. 1.
(<http://www.news.com.com/2102-1033-275297.html>)

4) 일례로, 지난 2000년초 세계를 경악케 했던 AOL과 Time Warner의 합병으로 탄생한 AOL-Time Warner는 기록적인 적자 행진을 거듭하며 지난 해 미 역사상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인 9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매일경제, 4월 1일자 참고).

- [5] “Long road ahead for EchoStar merger”, News.com, 2001. 10. 30.
(<http://news.com/com/2102-1033-275109.html>)
- [6] “Murdoch Adds to Empire With Control of DirecTV”, *New York Times*, 2003. 4. 10.
- [7] “News Corporation Agrees To Acquire 34% Of Hughes Electronics For \$6.6 Billion In Cash And Stock”, Cnet.com, 2003. 4. 9.(<http://investor.cnet.com/investor/news/newsitem/0-9900-1028-21114516-0.html>)
- [8] “SBC, GM fall out on DirecTV talks”, *Reuters*, 2003. 4. 1.

미국, 디지털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안 제출

정보사회연구실 연구원 이철남
(T. 570 - 4313, seabird33@kisdi.re.kr)

1. 개요 및 배경

미국의 Lofgren의원과 Boucher의원이 지난 2003년 3월 4일 미하원에 디지털 저작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권리 및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¹⁾을 제출하였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무한 배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이라는 입법을 통해 저작권자들에게 불법적인 접근 및 복제를 금지시킬 수 있는 기술조치들을 보호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었다. 하지만 그 결과 사용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사용 또는 저작물을 다른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DMCA 입법이후 이를 비판하는 수많은 주장들의 요지는 DMCA가 저작권법의 균형점을 저작권자들에게 치우치게 하였고,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

2. 주요 내용

가.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정이용 및 소비자의 기대
법안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107조 본문에 ‘아날

1) H.R. 1066 ‘Benefit Authors without Limiting Advancement or Net Consumer Expectations(BALANCE) Act of 2003’

2) 그러나 2002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했었다.